

##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 개방화와 소득분배\*

김종섭(서울대)\*\*

I. 서론
II.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소득분배
III. Intra-Industry Trade in Mercosur
IV. Conclusion

### I.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1980년대 말부터 무역개방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개혁으로 인해 그 전보다는 훨씬 안정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1980년대 10년 동안의 저성장과 이로 인한 소득 분배의 불평등 확대를 경험한 이 지역 국가들로서는 1990년대의 안정된 성장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리라고 기대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전통 경제학도 개방과 성장은 개발도상국 소득분배의 개선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견하고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2-BM2085).

\*\* Chon-Sup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Globalization and Income Distribution in Latin America"

있다. 즉,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가 무역개방을 하면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인 노동자에 대한 보상, 즉 임금이 상승하므로 저소득층인 노동자의 소득이 증가하고 전체적인 소득분배가 개선된다는 것이다. 안정된 성장은 실업률을 줄이고 고용을 늘리기 때문에 임금을 상승시키고 소득분배를 개선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에서는 1990년대 시행된 무역개방과 여러 개혁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는 개선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그 이유를 주로 다음 세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는 중국의 등장으로 인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노동이 풍부한 국가라기보다는 자본이 풍부한 국가가 되었다는 논리이다. 두 번째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개방 이전에 보호하였던 산업들이 비숙련 노동자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개방으로 인해 비숙련노동자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숙련노동자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 유입으로 인해 고소득층인 숙련노동자의 수요와 임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즉 중국의 등장으로 인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소득분배가 개방에도 불구하고 악화되었다는 주장을 분석하려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98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소득분배를 살펴보고 이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을 살펴본 다음 중국의 부상이 라틴아메리카 소득불평등의 심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주장을 고찰해 보려 한다.

## II.

### 1. 198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소득분배

라틴아메리카는 세계에서 소득분배가 가장 불평등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인구의 상위 5%가 전체 국민소득의 1/4을, 상위 10%가 전체 국민소득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1인당 국민소득이 라틴아메리카의 1/2 밖에 안 되는 아프리카와 비슷한 수준이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1970년대에는 거시경제적 안정과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1980년대에는 경제가 불안정해졌을 뿐 아니라 10년 동안 거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거시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소득불평등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 하였던 1970년대에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경기침체가 계속된 1980년대에는 다시 악화되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 58.0에 이르렀던 라틴아메리카의 Gini계수는 10년 동안 개선되어 1982년에는 53.8 로 5포인트 하락하였다.<sup>1</sup> 그러나 외채위기와 그 이후의 경제적 침체로 인해 1990년에는 Gini계수가 58.3으로 상승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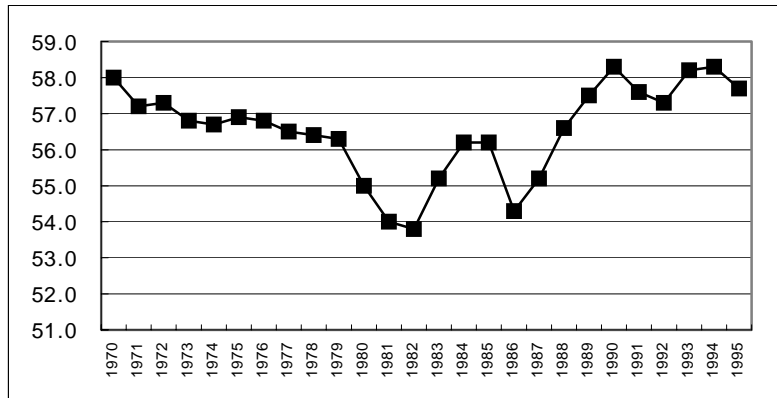
1990년대에 들어서는 거시경제적인 안정과 1980년대보다 높은

---

<sup>1</sup> 라틴아메리카의 Lorenz곡선으로부터 추정. Londoño and Székely(1997) 참조.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소득불평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였을 것이다. 게다가 무역개방은 소득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림 1> 라틴아메리카의 Gini 계수: 1970-95



자료: IDB (1998)

그러나 이러한 예상은 크게 빗나가고 말았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대 초에 소득분배는 악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개선되지도 않았다. Székely(2001)는 라틴아메리카 17개국의 76개 가계통계조사를 분석한 결과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 1990년대에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다. <표 1>에서 보듯이 Gini계수는 1990년대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승하였다. 볼리비아와 엘살바도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에서는 소득분배가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 콜롬비아 같이 약간 하락한 국가도 있으나 그 하락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1>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Gini 계수: 1989-1999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Argentina								47.7		49.3	
Bolivia		54.4			53.2		52.7	58.7	58.9		60.1
Brazil				57.2	59.5		59.1	59.0	59.1	59.0	58.4
Chile		54.7		52.2		55.5		56.3		55.8	
Colombia			56.7		60.3		56.9		57.5	56.7	56.2
Costa Rica	45.9		45.9		45.4		45.7		45.8	46.1	
Dom.Rep.								48.1		47.7	
Ecuador							56.0			56.1	
Honduras	57.0			54.8				52.8	59.0	58.5	58.4
Mexico	53.0			53.4		53.6		52.7		53.7	
Nicaragua					56.6					60.2	
Panama			56.2				56.0		57.5	56.5	56.3
Paraguay							57.0			56.9	59.4
Peru			46.4			48.3			50.5		
El Salvador							50.5		51.9	55.8	54.5
Uruguay	40.6			43.1			42.0		43.0	43.8	
Venezuela	43.9				42.8		46.6		48.6	47.0	46.7

자료: Székely(2001)

## 2. 소득불평등 확대의 원인

Wood(1997)와 Lindert & Williamson(2001)은 1960-70년대에 아시아 국가들이 무역개방을 추진하면서 소득불균형이 줄어든 반면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무역개방을 추진하면서는 소득불균형이 확대된 이유를 당시의 국제적인 환경에서 찾고 있다. 즉,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개방을 추진한 시기는 중국 및 여러 아시아 국

가들이 세계시장에 진입하던 시기와 일치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멕시코 같은 국가는 중국의 등장으로 인해 세계경제에서 상대적으로 비숙련 노동자가 풍부한 국가가 아니라 숙련노동자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멕시코는 무역개방으로 상대적으로 풍부한 숙련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고, 즉 그들의 임금이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희소한 비숙련 노동자들은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임금이 하락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아시아 국가들이 개방을 추진하였던 1960-70년대에는 개방을 추진하였던 국가들이 저임금 국가들로부터 경쟁을 별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비숙련 노동자들은 임금 상승을 경험할 수 있었고 소득불균형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Hanson & Harrison(1999)는 멕시코의 경우 무역개방 이후 숙련노동의 상대 임금이 상승한 이유는 1985년 이전에 멕시코에서 가장 보호받고 있던 산업이 비숙련 노동자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들은 1984년의 산업별 기술집약도와 관세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게다가 무역개방으로 관세가 가장 많이 인하된 부문도 비숙련 노동자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부문이라는 것이다.

Feenstra & Hanson(1995)는 1975년과 1988년 사이의 멕시코 산업 센서스 데이터를 분석하여 외국인직접투자와 숙련노동의 상대적 수요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고, 1980년대 멕시코

에서 임금 불균형이 확대된 것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 증가와 관계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은 다국적기업들이 부품생산과 조립을 국제적으로 분할하는 것을 반영한다.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은 멕시코의 생산을 상대적으로 기술 집약적인 제품으로 이동하게 하며 이에 따라 숙련노동의 상대적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임금불평등의 심화는 라틴아메리카에서만 일어난 현상은 아니며 오히려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사례를 분석한 Acemoglu(2000)는 지난 수십년 동안 기술발전은 기술편향(skill-biased)적인 기술발전이었다고 주장한다. 기술편향적인 기술발전은 1980년대에 더욱 가속화되어, 기술과 교육에 대한 보상이 가파르게 상승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교육 받은 노동자의 공급이 급속하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더 빠르게 증가하여 임금의 불평등이 상승하였다고 한다.

### III.

중남미 국가들이 무역개방을 하면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여 소득분배가 개선되리라는 기대는 스톨퍼-사무엘슨 정리(Stolper-Samuelson Theorem)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스톨퍼-사무엘슨 정리에 의하면 자유무역(또는 무역개방)은 풍부한 자원에 대

한 보상을 상승시키고 희소한 자원에 대한 보상을 하락시킨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비숙련 노동자가 풍부한 자원이고 자본과 숙련노동자가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무역개방을 하면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고 자본에 대한 보상과 숙련 노동자의 임금은 하락하리라고 기대되었다. 저소득층인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소득분배는 개선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앞에서 보았듯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무역개방을 추진하면서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그 설명 중에 하나는 Lindert & Williamson(2001)가 주장하듯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개방을 추진하였던 1980년대에는 중국을 비롯하여 인도, 방글라데시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보다 비숙련 노동력이 더 풍부한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시장에 진입하던 시기와 일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이들 국가들의 출현으로 인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별안간 세계경제에서 상대적으로 숙련노동자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가 되어 버렸다는 것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스톨퍼-사무엘슨 정리에 의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희소한 비숙련 노동자의 하락하였다고 주장한다. Wood(1997)도 이에 대한 근거로 1980년대 중반 이후 개발도상국 수출품의 국제가격이 선진국 수출품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하였음을 들고 있다.



그러나 Wood가 제시한 근거는 199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소득불균형 확대가 중국의 수출증대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 점을 분석하여 한다.

### 1. 중국의 부상

중국의 수출은 1978년에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8%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수출은 1978년부터 연평균 16%씩 증가하여 2000년에는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로 증가하였다. 세계시장에서의 이러한 공급의 증가는 중국의 수출규모가 작았던 1980년대에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중국의 수출규모가 커진 1990년대에는 세계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 중에서도 중국과 비슷한 제품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엄청난 경쟁력을 갖춘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에 그 충격은 더욱 컸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수출증가가 개발도상국들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려면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편리하다. 구성의 오류란 하나의 개별적인 경우에 사실인 것이 그 경우에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모든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경우에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적용할 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경제규모가 작은 하나의 개발도상국은 국제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가격하락을 유발하지

않고도 수출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도 있겠지만 개발도상국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 1960-70년대 동아시아 국가들이 개방을 추진하고 수출증대를 꾀하였던 시기에는 이러한 정책을 추구하였던 개발도상국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교역조건의 악화 없이 수출증가를 도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였다면 선진국 시장이 이들의 수출을 모두 흡수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제품 가격이 하락하였을 것이며 수출확대를 통한 성장전략은 성공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나 인도 같이 규모가 큰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집단으로서 뿐 아니라 개별 국가로서도 국제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이 국제시장에 진입하여 수출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면서 중국의 수요 수출품의 국제가격은 하락압력을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신 뿐 아니라 같은 제품을 수출하는 다른 개발도상국에게도 타격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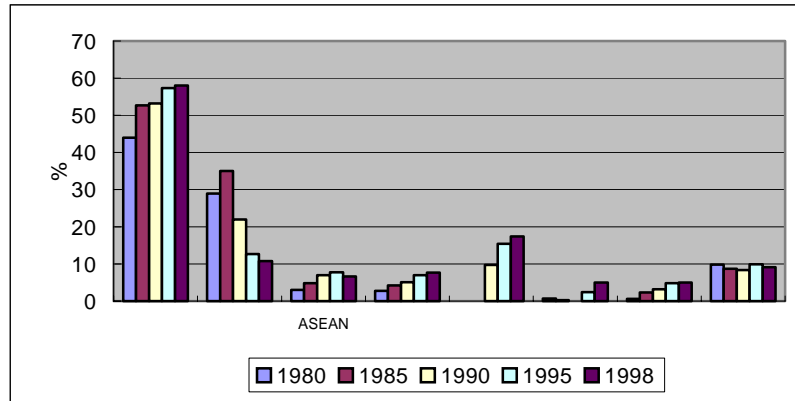
한 예로 의류산업을 살펴보자. 의류산업은 전통적인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서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중국의 수출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제품이다. 세계 의류시장에서 개발도상국의 시장점유율은 1980년과 1998년을 통하여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전부터 세계의류시장에 진입한 개발도상국은 중국이 아니라 선발개도국들이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선발 개발도상국들은 1980년대 중반까지 세

계의류시장에서 시장점유율 45%(전체 개발도상국 의류수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수출품목을 전환하고 의류시장으로부터 철수하면서 1990년대 중반에는 이들 국가들의 시장점유율이 20% 정도(개발도상국 수출의 1/5)로 떨어졌다. 선발개도국들의 시장점유율 감소부분은 ASEAN 국가들, 남아시아 국가들, 중국, 멕시코, 터키 같은 다른 개발도상국에게로 넘어갔다. 이것은 의류시장의 집중도 하락과 새로운 진입자들의 경쟁격화를 가져왔으며, 따라서 의류부문에서의 수익률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의류부문의 경쟁격화는 1980년대 말 후발개발도상국들이 세계의류시장에 진입하고 선발개발도상국들이 의류시장에서 철수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의류시장에 늦게 진입한 후발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중국의 수출 증가는 눈부시다고 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1990년에는 중국의 의류제품 수출이 선발개도국들의 반도 되지 않았으나 1998년에는 이들의 수출액을 훨씬 넘어섰을 뿐 아니라 ASEAM과 남아시아 국가들의 총수출액보다도 많게 되었다. ASEAN국가들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세계의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그 반면 남아시아 국가들과 멕시코의 수출은 1990년대에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림 2> 의류제품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시장점유율



자료: UNCTAD (2002)

중국과 그 외 개발도상국들의 국제의류시장 진입으로 경쟁이 얼마나 격화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HHI(Herfindahl-Hirschman Index)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섬유제품의 시장집중도는 전체 제조업 제품의 시장집중도보다 낮다.<sup>2</sup> 즉, 섬유제품시장에서는 경쟁이 일반적인 제조업 제품보다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세를 살펴보면 국제시장에서 제조업 제품 전체에 대한 시장집중도는 1980년대 초반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가 1980년대 중반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그 후 서서히 하락하다가 다시

<sup>2</sup> HHI 지수는 일반적으로 국내시장에서의 시장집중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i제품시장의 시장집중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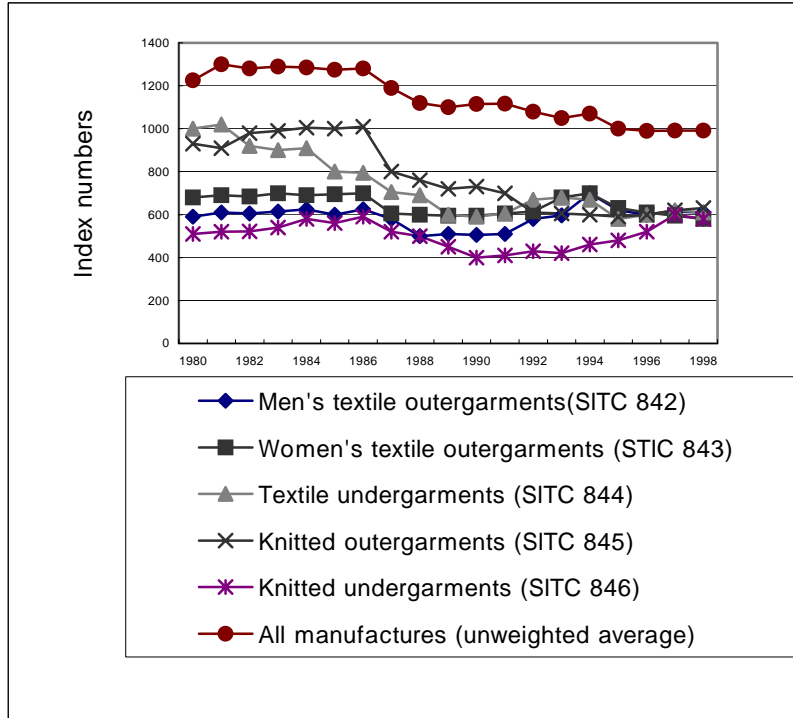
$$HHI_i = \sum_j (s_{ij})^2$$

여기서  $s_{ij}$ 는 i제품시장에서 j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뜻한다. 한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을 경우 HHI는 10,000이 되며 회사가 무수히 많을 경우에 HHI는 0에 수렴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시장에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각 국가의 시장점유율을 이용하여 계산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정도를 측정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의류제품의 경우 1980년대 중반까지는 시장집중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1987년부터 1991년까지 꾸준히 하락하였다. 이것은 주로 선발개발도상국들의 후퇴와 그보다 많은 수의 국가들, 즉 ASEAN과 남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중국, 터키, 멕시코 등의 수출증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약간 상승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수출증가로 인해 국제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이 다른 개별 국가들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중국의 수출증가는 단지 의류제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고 그 외의 노동집약적인 제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등장과 노동집약적인 제품의 수출증가는 노동집약적인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들의 교역조건을 악화시키기에 충분하였고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풍부한 부존자원인 비숙련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들어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중국과 경쟁하는 산업구조와 수출구조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림 3> 의류제품의 시장집중도



자료: UNCTAD

## 2.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수출구조와 소득분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일차산품을 수출하였다. 최근에는 공업화가 진전되어 공산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차산품이 이 지역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더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수출품목을 기술·요소집약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6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계산해 보았다.<sup>3</sup>

<sup>3</sup> 이러한 분류는 UNCTAD(2000)에서도 사용되었다.

- A. Primary commodities
- B. Labor-intensive and resource-based manufactures
- C. Manufactures with low skill and technology intensity
- D. Manufactures with medium skill and technology intensity
- E. Manufactures with high skill and technology intensity
- F. Unclassified products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경우 1992년 수출의 47.8%가 노동·자원 집약적인 제품(B)의 수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99년에는 이러한 범주의 제품 수출이 줄어들고 중급(D) 및 고급(E) 기술 집약적인 제품수출이 각각 14.9%와 24.6%로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노동·자원집약적 제품수출은 전체의 38.9%를 차지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 파라과이 등은 일차산품(A) 수출이 1990년 수출액의 70~95%에 이르고 있다. 1999년에는 수출 중 일차산품 비중이 6~7% 줄어들어 63~88%로 하락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노동·자원집약적인 제품의 수출비중이 10%도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의 수출품이 국제시장에서 중국의 노동집약적인 제품과 경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1999년 중급 및 고급 기술 집약적인 제품의 수출비중 합이 아르헨티나의 경우 23.6%, 그 외의 국가는 10% 이하로서 중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이 중국보다 숙련노동자가 풍부한 국가라고 할 수도 없다.

브라질은 1990년대에 45~47%의 일차산품 수출비중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앞서 말한 국가들보다는 일차산품 수출비중이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원집약적인 제품수출비중도 12%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국과 국제시장에서 심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일차산품 비중이 제일 낮으며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에 30.5%였던 일차산품 비중은 1999년에는 8%로 대폭적으로 하락하였다. 멕시코의 수출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은 중급 기술집약적인 제품(D)으로서 1990년에는 35.9%, 1999년에는 43.8%에 이르렀다. 그 다음은 고급기술집약적 제품으로서 1999년에 총수출의 27.7%를 차지하였다. 수출상품의 구조로 보았을 때 멕시코는 중국보다 숙련노동자가 풍부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표 2>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기술집약도별 상품 수출

		A	B	C	D	E	F
China	92	16.3	47.8	7.0	9.3	15.4	4.1
	99	9.5	38.9	8.5	14.9	24.6	3.6
Argentina	91	70.0	8.4	7.0	6.2	8.0	0.4
	99	63.7	7.7	4.3	13.7	9.9	0.7
Brazil	90	46.7	12.7	13.5	15.7	11.1	0.4
	99	45.1	12.6	8.1	18.9	14.7	0.6
Chile	90	89.8	3.4	1.5	0.9	3.9	0.4
	98	83.3	4.4	1.9	3.4	5.8	1.1



Ecuador	90	95.2	2.3	0.8	0.6	0.9	0.2
	99	87.9	4.7	1.2	2.8	2.9	0.5
Mexico	90	30.5	8.0	7.3	35.9	16.6	1.7
	99	8.0	13.6	5.2	43.8	27.7	1.6
Paraguay	90	90.1	6.2	0.2	0.1	3.3	0.1
	99	86.1	10.8	0.0	0.6	2.4	0.1
Thailand	90	35.6	31.1	2.7	7.8	19.0	3.8
	99	22.3	19.2	3.4	17.9	34.6	2.6
Indonesia	90	36.8	51.3	3.1	1.8	5.7	1.2
	99	27.2	44.8	3.7	6.9	15.7	1.6
Malaysia	90	33.9	12.9	3.3	8.5	39.1	2.4
	99	13.0	10.1	2.2	10.5	62.8	1.3

자료: UN COMTRADE Dataset로부터 계산

따라서 숙련노동자가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멕시코의 소득분배가 중국의 등장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설은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중국의 노동집약적인 제품 수출 증가로 멕시코의 노동집약적인 제품 수출이 타격을 받아 이 산업에 종사하는 멕시코의 비숙련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았을 수 있다. 이 경우 숙련노동자들의 상대적인 임금이 상승하여 소득분배가 악화되었을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 중국과 수출구조가 유사한 정도가 라틴아메리카보다 훨씬 심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더 큰 타격을 받았을 것이며 소득분배가 더 악화되었을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인도네시아의 노동자원집약적 제품의 수출비중은 1990년에 51.3%였으며, 1999년에는 조금 하락하여 44.8%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인도네시

아는 중국의 노동집약적 제품 수출로 비숙련노동자들의 임금하락을 경험하였을 수 있다. 태국도 인도네시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태국의 노동·자원집약적인 제품의 수출비중은 1990년과 1999년에 각각 31.1%와 19.2%를 기록하였다. 이 수치는 중국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비교해서는 중국의 수출구조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말레이지아는 노동·자원집약적 제품수출비중이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며 고급기술집약 제품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멕시코의 수출구조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구조를 분석하였을 때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에서는 멕시코가 중국의 노동집약제품 수출 증가로 소득분배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멕시코와 비슷한 수출구조를 갖고 있는 말레이지아가 멕시코와 비슷한 정도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멕시코와 말레이지아보다는 중국과 매우 유사한 수출구조를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더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앞에서는 노동자원집약제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나 수출경합도를 이용하면 더욱 명백해진다. 수출경합도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S(a,b) = \left\{ \sum_i \text{Min}[X_i(a), X_i(b)] \right\} \times 100$$

위에서  $S(a, b)$ 는 A국과 B국 사이의 수출경합도 지수;  $X_i(a)$ 는 A국의 수출에서 상품  $i$ 가 차지하는 비중;  $X_i(b)$ 는 B국의 수출에서 상품  $i$ 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이 지수는 A국과 B국의 상품별 수출구조가 얼마나 유사한가, 즉 두 나라의 수출구조가 얼마나 경쟁적인가를 나타낸다. 만약 A국과 B국의 상품별 수출구조가 완전히 일치한다면 ESI의 값은 100이 되며, 두 나라의 수출구조가 전혀 다르다면 ESI의 값은 0이 된다. 일반적으로 ESI는 0과 1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두 나라의 수출구조가 비슷하여 경쟁적임을 나타낸다.

<표 3>에서 보듯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에서 중국과의 수출경합도가 제일 높은 국가는 멕시코로서 1992년에 수출경합도가 40이었으며 1990년대에 경합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9년에는 52에 이르렀다. 그 다음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서 중국과의 1992년에는 수출경합도가 각각 34와 27에 이르렀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9년에는 각각 30과 22를 기록하였다. 칠레, 에콰도르, 파라과이는 중국과의 수출경합도가 매우 낮은 편이며 10년동안 경합도에 큰 변화도 없다. 그 이유는 이들 국가들의 수출이 일차산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lt;표 3&gt;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국가 사이의 수출경합도

	92	93	94	95	96	97	98	99
Argentina	27	28	27	27	24	24	22	22
Brazil	34	35	32	34	33	32	30	30
Chile	15	17	17	15	16	16	17	-
Ecuador	11	13	-	11	12	11	12	11
Mexico	40	41	41	46	47	49	51	52
Paraguay	9	8	10	11	11	10	9	7
Indonesia	41	43	42	43	44	37	36	44
Malaysia	37	37	36	37	39	40	41	40
Thailand	53	54	-	56	53	53	54	54

자료: UN COMTRADE Dataset로부터 계산

이에 비하여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는 중국과의 수출경합도가 40~50에 이른다. 이는 앞서서도 보았듯이 이들 국가들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원집약적 제품의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에는 멕시코만이 중국과 비슷한 수출구조를 갖고 있으며 중국과 높은 수출경합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1990년대에 개방을 추진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된 이유를 중국의 노동집약적 제품수출 확대에서 찾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중국과 수출상품구조가 비슷하여 수출경합도가 높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소득분배가 라틴아메리카보다 더 악화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의

소득분배를 살펴보면 뚜렷한 추세를 찾아볼 수 없다. [표 4]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1990년대 중반에 소득분배가 약간 악화되었으나 1990년부터 1998년까지 보면 약간 개선되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1990년과 1997년 사이에 약간 악화되었다.

<표 4>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Gini 계수

인도네시아				
1990	1993	1996	1998	
0.320	0.340	0.356	0.319	
태국				
1990	1992	1994	1996	1998
0.513	0.531	0.518	0.511	0.508
말레이시아				
1990	1995		1997	
0.446	0.456		0.459	

자료: Tjiptoherijanto, Prijono and Sutyastie Soemitro Remi (2001), Phongpaichit and Sarntisart (2000), Roslan (2000)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중국과 경합관계가 높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조차 중국의 노동집약적 제품 수출증가로 인해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는 증거를 찾기 힘들다. 중국과 수출상품구조가 다르고 경합관계가 낮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로서는 중국으로 인해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그만큼 더 어렵다.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만이 중국과 상당히 비슷한 수출상품구조와 높은 경합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멕시코의 경우 중국의 등장으로 인해 소득분배가 악화되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뿐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다만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일차산  
품 수출에서 벗어나 노동집약적인 제품수출을 증가시키려 한다면  
노동집약적인 제품에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국의 존재가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따라서 노동집약적 제품 수출로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IV.

1980년대 후반 이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무역개방을 비롯한  
여러 개혁조치들을 시행하였으며 거시경제도 안정되어 있었기 때  
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지역 국가들의 소득분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를 통하여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  
가들에서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몇몇 학자들은 그 이  
유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개방을 추진한 시기가 중국 및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시장에 진입하던 시기와 일치하였다는 데서  
찾고 있다. 즉 멕시코 같은 국가는 중국의 등장으로 인해 세계경  
제에서 상대적으로 비숙련 노동자가 풍부한 국가가 아니라 숙련노  
동자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멕시코는  
무역개방으로 상대적으로 풍부한 숙련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고,  
즉 그들의 임금이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희소한 비숙련 노동자들  
은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임금이 하락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에는 멕시코만이 중국과 비슷한 수출구조를 갖고 있으며 중국과 높은 수출경합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멕시코 외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1990년대에 개방을 추진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된 이유를 중국의 노동집약적 제품수출 확대에서 찾기는 어렵다. 다만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일차산품 수출에서 벗어나 노동집약적인 제품수출을 증가시키려 한다면 노동집약적인 제품에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국의 존재가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따라서 노동집약적 제품 수출로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Abstract**

The trade libe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in Latin America in the 1990s, brought the expectation that the income distribution in the region would improve. However, it did not. Some observers argued that the emergence of China, which has a strong comparative advantage in unskilled-labor-intensive products, is the reason of this. This paper shows that, with exception of Mexico, the deterioration of the income distribution cannot be attributed to China.

Key Words: Income Distribution, Globalization, Skilled Labor, Unskilled Labor,  
Labor-Intensive Industry / 소득분배, 개방화, 숙련노동자, 비숙  
련노동자, 노동집약산업

논문투고일자: 2003. 9. 30

게재확정일자: 2003. 11. 14

### 참고문헌

- Acemoglu, Daron(2000), "Technical Change, Inequality, and Labor Market," *NBER Working Paper*, No. 7800, Cambridge, MA.
- Bouillon, Cesar Patricio(2000), "Inequality and Mexico's Labor Market after Trade Reform,"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http://www.iadb.org/sds/doc/POVINEQUALITY.pdf>.
- de Janvry, Alain and Elisabeth Sadoulet(1999), "Growth, Poverty, and Inequality in Latin America: A Causal Analysis, 1970-94", Prepared for Conference on Social Protection and Poverty,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Feenstra, Robert C. and Gordon H. Hanson(1995),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Relative Wages: Evidence from Mexico's Maquiladoras," *NBER Working Paper*, No. 5122, Cambridge, MA.
- Gavin, Michael, and Ricardo Hausmann(1998), "Nature, Development and



- Distribution in Latin America - Evidence on the Role of Geography, Climate and Natural Resources,”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Office of Chief Economist Working Paper*, No. 378.
- Harrison, Ann and Gordon Hanson(1999), “Who Gains from Trade Reform? Some Remaining Puzzles,” *NBER Working Paper*, No.6915, Cambridge, MA.
- Lindert, Peter H. and Jeffrey G. Williamson(2001), “Does Globalization Make the World More Unequal?” *NBER Working Paper*, No.8228, Cambridge, MA.
- Londoño, J. L. and M. Székely(1997), “Persistent Poverty and Excess Inequality: Latin America 1970-1995,” *Office of the Chief Economist Working Paper Series*, No. 357,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Phongpaichit, Pasuk and Isra Sarntisart(2000), “Globalization and inequality: the case of Thailand,” OECD Development Center, <http://www.oecd.org/dataoecd/54/50/2682434.pdf>.
- Roslan, A.H.(2000), “Income Inequality, Poverty and Development Policy in Malaysia,” School of Economics, Universiti Utara Malaysia, <http://ced.montesquieu.u-bordeaux.fr/SBROSLAN.pdf>.
- Ros, Jaime and Nora Claudia Lustig(1999), “Trade and Financial Liberalization with Volatile Capital Inflows: Macroeconomic Consequences and Social Impacts in Mexico during the 1990s,” Paper prepared for the CEPA’s conference on Globalization and Social Policy, New York.
- Szekely, Miguel and Marianne Hilgert(2001), “The 1990s in Latin America: Another Decade of Persistent Inequality,” *Research Department Working Paper*, No. 410,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Szekely, Miguel(2001), “The 1990s in Latin America: Another Decade of Persistent Inequality, but with Somewhat Lower Poverty,” *Research Department Working Paper*, No. 454,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Tjiptoherijanto, Prijono and Sutyastie Soemitro Remi(2001), “Poverty and

Inequality in Indonesia: Trends and Programs,"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Chinese Economy *Achieving Growth with Equity*, Beijing, July 4-6.

UNCTAD(2002),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2002, United Nations.

Wood, Adrian(1997), "Openness and Wage Inequality in Developing Countries: the Latin American Challenge to East Asian Conventional Wisdom,"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 11, No. 1, pp. 33-57.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2001), "A Globalized Market - Opportunities and Risks for the Poor," *Global Poverty Report 2001*.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1998), *Facing Up to Inequality in Latin America*,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in Latin America, 1998-99 Report.